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에게 드리는 두번째 글

지난 한달동안 걸은 평온, 속은 소용돌이 친 우리교회 남녀 선교회 활동 중지, 12명의 교인 징계, 해고 돌풍 등

지난 한달동안 우리 교회는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외관상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교회는 실로 엄청난 소용돌이속에 휘말리면서 교회라기보다는 3류 정치집단의 발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박제임스(한국명,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은 임동선 원로목사의 사무실을 패쇄시켜버렸고 교인들에게 따뜻한 커피봉사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던 모든 여선교회의 활동을 일시에 갑자기 중단시켰으며 안수집사와 장로 등 12명의 교인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무장로인데도 자기들의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무장로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고 총무부의 직원 3명을 모두 사임, 사실상 해고시켰습니다. 지난 16년동안 오후 학교에서 식당책임자로 일해왔던 권사님은 남편이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과 반대편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박제임스 장로는 성가대를 찾아가 15년동안 성가대에서 봉사해온 집사님에게 교인자격이 정지됐다는 이유로 성가대에서 내려오도록 함으로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교회는 교회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6명의 장로들, 사전통보없이 임동선 원로 목사실 폐쇄 앉아있을 방도 얘기나눌 공간도 없어 사실상 쫓겨난 셈

지난 4월 7일 오전에 박제임스 장로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장로와 한패를 이루고 있는 노수정 장로가 임동선 원로목사실에 열쇠를 다루는 사람을 데리고 와 열쇠를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새로운 키를 임목사님에게 주지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들은 원로목사실을 패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장로들은 사실상 동양선교교회의 설립자인 임동선 원로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 내 버린 것입니다.

임동선 원로목사님은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방도 그리고 누구와 얘기를 나눌 공간도 없습

니다. 더구나 원로목사실에는 임동선 원로목사님의 목회와 선교의 산 증거인 수많은 감사패와 공헌패, 선교현장의 기념품과 사진 그리고 개인 소장품 등이 보관돼있는 작은 기념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열쇠를 바꾸고 그리고 바꾼 열쇠를 주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장로라는 사람들이 교회의 설립자이며 헌법에 명문화된 원로목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쉬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명의 장로들,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 선교회 활동 갑자기 중단시켜 대부분의 회장들이 반대파, 여선교회 커피서비스 눈에가시로 여겨

지난 4월 11일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장로 등 6명이 장악한 당회는 예복회와 여상락회를 제외한 모든 남녀 선교회의 모임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들은 “담임목사 후” 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그것은 실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담임목사가 없으면 선교회가 활동을 중지해야 합니까? 오히려 담임목사가 없을 때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이들 선교회의 회장들의 대부분이 그들 장로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여선교회가 연합으로 예배후 주차장에서 교인들을 위해 커피를 서비스하자 교인들이 이를 반기고 커피와 크림 등 도네이션하는 사람들이 늘자 그들은 더 이상 방관하면 자기들이 밀릴 것이라는 강박관념에다 바른 것을 보지못하는 사악한 마음이 바로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주일에 장로들은 커피 서비스 장소에 교회버스를 주차시켜 아무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남 녀 선교회의 활동을 일시에 갑자기 중지시키는 것은 결코 교회적이 아닌 사악한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교회의 헌법에도 없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 결정인 것입니다.

장로들, 12명의 교인들을 교인자격정지 처분 반대파 제거하기 위해 헌법에도 없는 징계,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장로등 6명이 장악하고 있는 당회는 지난 4월 11일 주보를 통해 김대복, 라철삼, 차귀동, 김광찬, 배영아, 전장근, 이선관, 한경수, 마사웅 집사와 이성주, 김요한, 임승표 장로 등 12명을 당회의 결의에 의해 교인 자격을 정지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교인 자격 정지”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교회 헌법 제98조는 제직에게 주는 벌로 1) 시무정지 2) 시무해임 3) 정직 4) 면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8조에는 징계의 규정을 별도로 만들고 그 규정에 의해서 책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교회에는 징계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날 주보는 또 이들 12명은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는 보지말라는 것인데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제임스 장로는 성가대를 찾아가 15년동안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4부 성가대 대장일을 맡아왔던

마사웅집사를 불러 “당신은 교인자격이 없으니 성가대 봉사를 하지 말라”면서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규칙을 떠나 어느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이런 통탄할 일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 집사는 이일이 있는 뒤 몇날 몇일을 잠을 못자면서 억울함을 삭혀야만 했습니다.

이들 6명의 장로가 장악하고 있는 우리교회 당회는 지금 법도 규칙도 없는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장로들의 속셈은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몰아내고 특히 제직회와 공동총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막으려는 음흉한 잔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깡패들과 같은 사람들이 조종하는 3류 정치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 남편이 반대파인 16년 근속의 전권사 전격 해임

흑자의 오후학교에 돈없다면서 구조조정이라는 이유 내세워

전현인 권사님은 지난 16년동안 오후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식사와 간식을 책임지는 주방의 책임자인 Head Cook로 봉사해 왔습니다. 남편인 전장근 집사는 강준민목사를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강목사측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권사를 해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교회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어린이들을 위하는 중요한 일이며 권사님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제임스를 비롯한 이들 6명의 장로들이 장악하고 있는 당회는 지난 4월 20일, 전권사를 전격해임했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작년에 오후 학교는 10만달러의 흑자를 냈고 이를 교회에 헌금한바 있다는 것은 우리 교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결국 남편이 자기들과 반대편이라고 보복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몰아낸 강준민목사보다 더 못한 비열한 행위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밀린 변호사비 1백만달러 육박, 장로가 교인상대 재판 계속

박환장로 구속, 보석금과 변호사비 교회헌금에서 지불할 계획

지난 3월9일 변호사와 교인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교회에서 받지 못한 변호사비가 얼마냐고 본인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칼 손 변호사는 분명하게 50만 달러라고 답변했습니다. 파커 변호사는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2-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우리교회는 변호사비만 80여만달러를 빚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월 제직회에서 11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전의 일이어서 이액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4월 제직회때 10만달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아직도 70만 달러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박제임스장로는 자기를 죽이려했다는 주장과 더불어 7명의 교인들에대한 TRO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최근에는 18명의 교인들을 영구히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 즉 변호사비가 또 여기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얼마전 박환장로는 이성주 장로를 발길로 차 손뺄에 금이 가는 7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문에 구속됐고 박장로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박장로는 지금 형사범으로 회부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장로가 장악한 우리교회 당회는 박장로의 보석금은 물론 박장로의 형사 재판 변호비용도 교회 헌금에서 지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땅재판이 그동안 진행됐고 앞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은행잔고 1백만불, 교회 헌금 모두 변호비로 지불해야 할 판.

우리 교회는 앞으로 1백만 달러를 훨씬 넘는 변호사비를 지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제직회 보고에 따르면 우리교회의 은행 잔고는 1백만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줄어들어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 돈마저 줄어들고 있는데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소송만을, 그것도 고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은 아무리 많이 내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비를 충당하는데 쓰여지는 비극을 이들 장로들이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무장로를 징계한 돌연변이 당회 헌법에도 없는 부끄러운 불법 징계

지난 3월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장로등 6명이 장악한 우리교회 당회는 지금까지 교회사에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같은 시무장로의 자격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정영식 장로는 1년, 안광석 장로는 6개월의 시무장로를 정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교회 헌법 78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78조 2항은 “당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갖는다”고 돼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회의 권한이지 당회원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또 헌법의 어느 조항을 봐도 “시무장로의 자격 정지”라는 조항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는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불법적인 징계인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당회원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노선이 다르면 가차없이 쫓아버리는 3류 정치꾼들의 모습을 또한번 나타낸 것입니다.

과반수 유지위해 새 당회원 선임 원천봉쇄 소수의견 무시, 6명이 당회이전에 마음대로 결정

우리 교회의 당회원 수는 모두 11명입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회이전에 이들 6명이 결정, 당회 이름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 무도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월의 공동총회 때 4명의 사역장로를 시무장로로 선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당회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과반수가 무너지기 때

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당회원으로 들어오면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
다. 그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이들의 당회입성을 막았고 그것이 안되자 공동회의를 무산시
키려 했던 것입니다.

박제임스 장로, “정기 공동회의 폐회했었다”고 주장 폐회됐으면 정기 아닌 임시공동회의인데도 억지 주장

그러나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변호사와의 대화 모임에서 박제임스장로는
지난 정기 공동회의는 자기가 동의와 제청을 얻어 폐회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앞에있던
노수정 장로도 “그 때(정기공동회의) 내가 폐회동의를 했고 엄문섭 장로가 제청을 해서 폐회된
것”이라고 겹들여 설명했습니다.(이 내용이 담긴 CD는 보관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리는 공
동회의가 정기 공동회의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헌법은 정기
공동회의는 1년에 1번, 연말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열렸던 정기 공동총회가
폐회됐으면 더 이상 정기공동총회는 없고 대신 열려면 임시공동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공동회의는 임시공동회의이며 임시공동회의는 사전에 고시한 안건만을 다루도록
우리교회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예산을 통과하고 권사와 안수집사를 선임하는 등
정기 공동회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회의는 정기 또는 임시공동회의가 아
닌 아무것도 할수 없는 회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당회원들은 5월 16일에 정기공동회의를
소집한다는 광고를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대로 이는 법을 모르는, 법을 어기는 불법으
로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법도 없고 정의도 없는 제멋대로
의 3류 조폭들이 설치한 정치판이 된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 형제 자매여러분!

동양선교교회는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흥인 등
소수 장로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번의 뼈아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성숙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몇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을 용납하지 말고
깨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하는 성숙된 교인들이 되어야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들 소수의 장로들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 가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동양선교교회 수습대책위원회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헌금을 하면 그 돈이 몽땅 시큐리티 가드 사용비용이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되고, 그나마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강목사실에서 수 백만달러에 이르는 우리들의 헌금을 빼돌린 하수인인 장주영 재정국장이 하는 설교를 매 주일마다 들어야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 가기도 싫다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고 싸움만 있는 교회는 싫다는 교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감안, 우리가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비상대책 특별기도회를 갖고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1시 월드미션 신학교 대 예배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와서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수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모임입니다.

이 특별기도회에는 우리교회에서도 시무하셨던 김성웅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열정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능력있고 감동을 주는 설교가 매주일 이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흥회에 온것 같으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기도회를 바로 우리들의 모임인, 초대교회의 믿음을 그대로 실현하는 모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도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직접찾아 오시고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213-703-5700이나 213-820-855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선교교회 비상대책 특별기도회 안내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1시

장소 : 월드미션 신학대학교 6층 대예배실.

(500 shatto Pl. #600. LA, CA. 90020)

추신

<성도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 지난 주 전 교인들에게 배부되고 큰 파장이 일자, 박제 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지난 주 예배시간에 사회자를 동원, "배달된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등 당황해 하면서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글의 모든 내용은 철저한 사실검증을 마친뒤 게재한 것입니다. 만일에 의문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분 또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계신분은 213-703-5700이나 213-820-855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